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dolesc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on Suicidal Ideation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김정민*

박사과정 정하나**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Doctoral Course : Jung, Ha-N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on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520 first- and second- year high-school student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on suicidal ideation, irrational beliefs, depression, hopelessness, and 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a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for Win version 12.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1) Female adolescents had higher levels of irrational beliefs, depression, specific types of communication patterns from the father(placating) and suicidal ideation mor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 male adolescents showed more communication patterns from the father(blaming)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2)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mothers' communication patterns(blaming), gender and hopeless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3) The adolescents' irrational belief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uicidal ideation and dysfunctional parental communication.

▲주요어(Key Words) :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s), 우울감(depression), 무망감(hopelessness), 부모의 의사소통유형(parental communication patterns)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생리적, 심리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시기로 우울, 폭력, 자살시도 등 다양한 문제행동

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trock, 1996). 이 중 특히 자살시도와 자살성공을 포함한 자살행동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Kessler et al., 1999).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약 14.5%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약 11.3%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며, 약 2.0%가 응급처치가 필요한 자살 시도를 감행한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7). 우리나라

* 주 저 자 : 김정민 (E-mail : jmkim122@mju.ac.kr)

** 교신저자 : 정하나 (E-mail : whitenight01@hanmail.net)

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8년 기준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1998년 이후 해마다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19세 청소년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008년 기준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자살률의 급증은 청소년기가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정서적 자기통제, 문제해결 기술, 이동성, 경제적 능력 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이 부족한 반면(Reynolds & Mazza, 1994), 자기인식과 자의식은 증가하는 동시에 자긍심은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Harter et al., 1997).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자살 관련 연구는 주제의 사회적 금기 성향, 자살 시도 혹은 자살 성공 대상 집단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우울감, 무망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밝히는 데 치중한 것들이다(Marciano & Kazdin, 1994; Spirito et al., 1988). 이 중 우울감은 자살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주요 변인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들을 바꿀 수 없다고 정의 내리는 무망감 또한 자살의 주요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김소아자 등, 2000; 조성진 등, 2002; Burns & Patton, 2000; Goldney et al., 1991; Hawton et al., 2005; Hawton & Williams, 2002; Petrie & Chamberlain, 1983; Rossow et al., 2005; Schotte & Clum, 1987). 반면, 자살 관련 개인의 특정 인지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몇몇 소수의 연구들만이 비합리적 신념과 자살과의 연관성을 다루었으나(변영주, 1994; 장은선, 2006; Baumeister, 1990; Rich & Bonner, 1987),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사고의 내용 혹은 구체적인 인지적 오류의 유형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비합리적 사고 유형 중 문제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실패로 보는 파국적 사고 또는 일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결정론적 사고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Beautrais et al., 1996, 1997; Brent et al., 1994; Brockington, 2001; Wagner, 1997), 또래 및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대인관계의 종결(Prinstein et al., 2000; Wagner, 1997)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 또한 자살행동을 촉발하는 환경적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생활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들 사건들을 이해하는 개인의 인지적 방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Lewinsohn et al.,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인지적 변인은 자살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살 관련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들 가운데 우울감, 무망감과 같은 정서적 변인과 더불어 왜곡된 사고 유형인 비합리적 신념을

인지적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및 자살 성공을 구분하여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자살생각(suicidal thought)은 '나는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와 같은 수동적인 형태와 '죽어버릴 거야'와 같은 능동적인 형태, 나아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Kendall, 2006). 자살 시도(suicidal attempts)는 일반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궁극적인 자살 성공(completed suicide)과는 구별된다. 이들 세 변인들은 상호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살생각은 대개 장기간에 걸쳐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살시도는 숙고 없이 총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Glaser, 1981). 또한 자살 시도와 자살 성공의 동기 및 기대 결과는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Boergers et al., 1998). 특히, 자살생각의 경우 거의 모든 자살행동의 시발점이 되므로 잠재적인 자살 고위험 집단을 초기에 선별하는 데 효과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청소년의 대략 19.4%가 경험할 만큼 흔히 일어나지만(Lewinsohn et al., 1996), 일단 자살시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후 반복적 재발 및 궁극적 자살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Pfeffer et al., 1994) 청소년기 자살행동의 초기 예방을 위해서 자살생각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대로 개인의 자살 관련 심리사회적 변인 중 특히 인지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들에도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 결핍,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부족, 가족 갈등, 가족 구성원의 자살 행동에의 노출 등 가족 관계 관련 변인들이 자살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ld et al., 1996; Gould & Kramer, 2001; Harter & Whitesell, 1996; Shaffer et al., 1996). 이들 변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잠재적 자살 위험군을 일차 스크리닝(screening)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 변인들 중 가족구성원의 자살행동 노출과 같은 외상 수준의 경험보다는 가족구성원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같은 일반적 성향의 변인이 더 적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지지나 갈등의 정도는 넓은 의미에서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때 청소년 자녀가 자해행동을 시도할 위험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Brent et al., 1994; Gould et al., 199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자살행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자해행동을 시도하는 경우의 약 50~90%가 자살행동을 시도한다는 통계치에도 불구하고(Favazza & Con-

terio, 1989; Simeon et al., 1992)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해행동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대처 기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자녀와 모-자녀 간의 차별적 상호작용 패턴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각각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비합리적 신념이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는 직·간접적으로 자신, 타인, 외부 세계 및 미래에 관한 신념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Beck, 1976). 특히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서 심리사회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와 재조정이 일어나며, 자아정체성, 세계관 등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이므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 부모의 부적응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도록 이끌며, 이어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은 자살생각을 부추길 것으로 기대하였다.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는 앞서 이미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인 비합리적 신념과 정서적 특성인 우울감, 무망감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더불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자살생각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개 고등학교와 경기도 소재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남학생 350명과 1학년, 2학년 여학생 358명을 포함한 총 7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한 총 520부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조사를 하기에 앞서 2009년 7월 20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과정 중 문항의 이해, 응답 방식, 소요 시간의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비조사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 총 7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를 통하여 담임교사에게 배부 및 회수되었고,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각 반별로 실시되었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중 총 520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자살생각 척도

자살생각의 정도와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1987)가 개발한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신민섭(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언제 자살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왔다.'와 같은 문항처럼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전혀 없다'의 1점에서 '거의 매일'의 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심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신념 척도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man(1968)의 PBI(Personal Belief Inventory), Ellis(1973)의 RS(Rationality Scale), Fox와 Davies(1971)의 AIII(Adult Irrational Idea Inventory), Plutchik(1976)의 SI(Self Inventory) 및 Laughridge(1973)의 TII(Test of Irrational Idea)를 참조하여 박재황(1981)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하위 척도는 문제회피('나는 책임지는 일은 자주 회피한다.'), 좌절반응('하고

싫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는 몹시 기분이 상한다.), 무기력(‘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며 앞으로도 불행할 것 같다.’), 비탄경향(‘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정욕구(‘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으면 하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각각 문제회피 .83, 좌절반응 .82, 무기력 .78, 비탄경향 .77, 인정욕구 .79로 나타났다.

3) 우울감 척도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1967)의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지난 2주간 자신의 심리상태를 4개 문항(‘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나는 슬픔을 느낀다.’,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부터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무망감 척도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1974)의 BHS(Beck Hopelessness Scale)를 신민섭 등(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나의 미래는 어두울 것 같다.’,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와 같은 문항에 자신이 느끼는 바를 예/아니오 중 하나로 표시하는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와 무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5)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척도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 근거하여 김경화(1989)가 제작한 척도를 김주분(1995)이 수정한 것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는 데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는 회유형(‘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애쓴다.’), 비탄형(‘아버지/어머니는 자신의 잘못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초이성형(‘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흠이나 잘못을 잘 꼬집는다.’), 산만형(‘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

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의사소통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각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아버지 회유형 .62, 아버지 비탄형 .90, 아버지 초이성형 .82, 아버지 산만형 .84, 어머니 회유형 .65, 어머니 비탄형 .89, 어머니 초이성형 .81, 어머니 산만형 .8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Cronbach’s α),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및 자살생각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및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좌절반응($t=-7.27, p<.001$), 비탄경향($t=-8.03, p<.001$), 인정욕구($t=-6.61, p<.001$), 비합리적 신념 총점($t=-6.52, p<.001$)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좌절반응, 비탄경향, 인정욕구 및 전체 비합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감($t=-2.80, p<.01$)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무망감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말해 우울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경우, 아버지의 회유형($t=-2.85, p<.01$) 의사소통유형과 비탄형($t=2.21, p<.05$) 의사소통유형만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을,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비탄형 의사소통유형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에서는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5.38, p<.001$).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및 자살생각의 차이

	남학생	여학생	t
	M(SD)	M(SD)	
비합리적 신념	135.75(24.54)	148.33(18.91)	-6.52***
좌절반응	27.53(6.45)	31.50(5.96)	-7.27***
비난경향	30.85(6.57)	34.97(4.97)	-8.03***
문제회피	25.61(6.64)	26.03(5.75)	-.77
무기력	23.44(6.26)	23.92(6.51)	-.85
인정욕구	28.32(6.61)	31.91(5.74)	-6.61***
우울감	15.30(12.67)	15.66(11.20)	-2.80**
무망감	5.57(4.53)	6.97(6.74)	-.34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52.99(14.50)	50.97(13.68)	1.63
회유형	14.65(3.62)	15.53(3.36)	-2.85**
비난형	12.90(5.54)	11.83(5.45)	2.21*
산만형	11.66(4.50)	11.05(4.57)	1.54
초이성형	13.78(4.77)	12.57(4.81)	2.90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49.56(14.62)	49.76(13.53)	-.16
회유형	14.80(4.02)	15.43(3.60)	-1.87
비난형	11.26(4.81)	11.52(4.92)	-.50
산만형	10.77(4.42)	10.35(4.53)	1.07
초이성형	12.73(4.58)	12.46(4.49)	.67
자살생각	42.79(17.75)	52.50(23.22)	-5.38***

*p<.05, **p<.01, ***p<.001

<표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2	Adj-R ²	F
자살생각	1 우울감	.64	.36***	.13		.13	77.41***
	2 비합리적 신념	.26	.28***	.20	.07	.20	48.15***
	3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	.72	.17***	.23	.03	.22	16.58***
	4 성별	.77	-.17***	.26	.03	.25	18.92***
	5 무망감	.41	.11*	.27	.01	.26	7.86**

note. 성별 더미변수: 남자 0, 여자 1

*p<.05, **p<.01, ***p<.001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각각의 하위 변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무망감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을 제외

한 변인들이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성별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독립 변인에 추가하였다(남자 0, 여자 1).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95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는 .20~1.00으로 모두 .1이상이고, VIF값이 1.00~5.13으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변인은 우울감($\beta=.36, p<.001$), 비합리적 신념($\beta=.28, p<.001$),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beta=.17, p<.001$), 성별($\beta=-.17, p<.001$), 무망감($\beta=.11,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생각

에 대한 우울감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으며($F=77.41, p<.001$), 비합리적 신념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7% 증가한 20%로 나타났다($F=48.15, p<.001$). 이에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2% 증가한 22%의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F=16.58, p<.001$), 성별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3% 증가한 25%로 나타났다($F=18.92, p<.001$). 최종적으로 무망감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1% 증가한 전체 설명력은 총 26%로 나타났다($F=7.86,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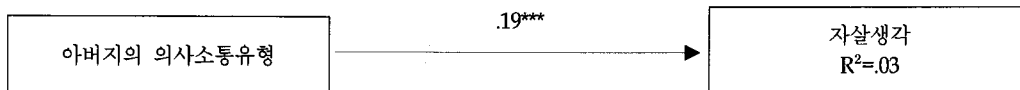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1.68~2.00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는 .86~1.00으로 모두 .1이상이고, VIF값은 1.00~1.17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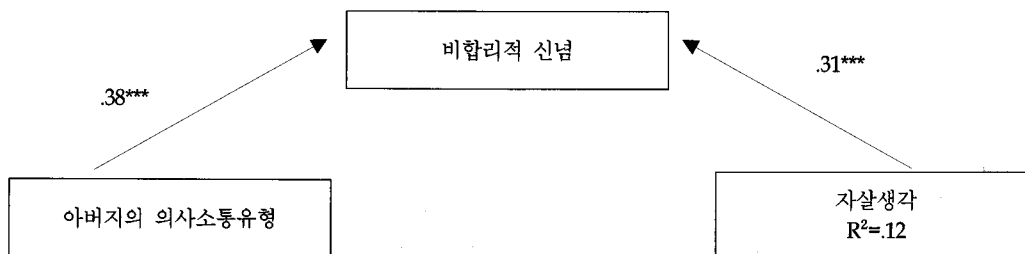
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져야 한다.

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38, p<.00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은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1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31, p<.001$),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beta=.07, ns$). 그러므로 비합리적 신념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그림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및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표 3>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단 계	변 인	β	ΔR^2	Adj-R ²	F
1 독립 → 매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 비합리적 신념	.38***	.14		87.15***
2 독립 → 종속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 자살생각	.19***	.03		18.58***
3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 자살생각 비합리적 신념 → 자살생각	.07 .31***	.08	.11	48.63***

***p<.001

2)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38, p<.00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은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25, p<.001$). 또한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28, p<.001$),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14, p<.05$). 그러므로 비합리적 신념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3)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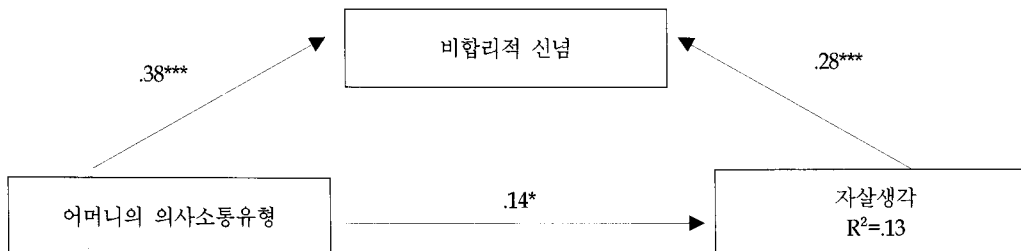
났으므로,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각각의 하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의 하위 변인들과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가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경우 1.67,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경우 1.73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차한계는 .30~1.00으로 모두 .1이상이고, VIF값이 1.00~3.35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의 경우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설명하는 변인은 초이성형($\beta=.32, p<.001$), 회유형($\beta=.24, p<.001$), 비난형($\beta=.16, 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초이성형의 경우 10%로 나타났으며($F=58.31, p<.001$), 회유형은 16%의 설명력을($F=48.75, p<.001$), 비난형은 1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F=34.19, p<.001$)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의 경우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을 설명하는 변인은 초이성형($\beta=.33, p<.001$), 회유형($\beta=.19, p<.001$), 산만형($\beta=.12, p<.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설명력은 초이성형의 경우 11%로 나타났고($F=61.63,$



<그림 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그림 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표 4>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단 계	변인	β	ΔR^2	Adj-R ²	F
1 독립 → 매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 비합리적 신념	.38***	.14		84.83***
2 독립 → 종속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 자살생각	.25***	.06		31.13***
3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 자살생각 비합리적 신념 → 자살생각	.14* .28***	.07	.13	38.98***

* $p<.05$, *** $p<.001$

<표 5>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ΔR^2	Adj-R ²	F
비합리적 신념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1 초이성형	1.51	.32***	.10	.10	58.31***
		2 회유형	1.56	.24***	.16	.06	48.75***
		3 비난형	.64	.16*	.17	.01	34.19***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1 초이성형	1.64	.33***	.10	.11	61.63***
		2 회유형	1.13	.19***	.14	.04	42.39***
		3 산만형	.62	.12*	.15	.01	30.75***

***p<.001

p<.001), 회유형은 14%로 나타났으며(F=42.39, p<.001) 마지막으로 비난형은 1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F=30.75, p<.001)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과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합리적 신념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무망감)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무망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서는 아버지의 회유형, 비난형 의사소통유형만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의 경우 하위 변인들 중 좌절반응, 비난경향, 인정욕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이 바라는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어떤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에 반하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적(should), 절대주의적(all-or-nothing) 사고 성향이 높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비합리적 신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홍창기, 2004)와 유사한 것으로,

변인들 중 특히 여학생의 인정욕구가 높게 나타난 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 두 연구는 대상이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동일한 비합리적 신념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 하위 변인들 간의 비교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의 또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인 우울감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Calvete & Cardenoso, 2005; Hankin et al., 1998; Rich & Bonner, 1987)을 지지하는 것으로 초기 청소년기 이후 우울장애 유행율의 성차(Ge et al., 1996; Graber et al., 1997)와 연관이 있다.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에서는 아버지의 회유형과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는 나와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려 하며 희생적이다.'라는 아버지의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을, 남학생은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나의 탓이라 말하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라는 아버지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딸보다 아들에게 더 권위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비난형의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부-자녀 간 구체적인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의 자살 시도 위험성을 뒷받침 해 준다(Beautrais et al., 2006; Reinherz et al., 1995). 요약하면, 여자 청소년의 높은 비합리적 신념, 우울감 등 상대적 심리사회적 취약성은 자살생각의 위험성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은 우울감, 비합리적 신념,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 성별, 무망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우울감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청소년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 하나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Burns & Patton, 2000; Gould & Kramer, 2001; Rudatsikira et al., 2007). 이와 함께 무망감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행 연구 결과들(Collins & Citcliffe, 2003; Hawton et al., 2005; Shahar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우울감이나 무망감과 같은 정서적 특징 외에 비합리적 신념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합리적 사고의 삶을 의미 있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특성이 자살생각을 부추김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자살시도자들이 적절한 문제해결의 인지적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자살을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Blau & Gullotta, 1996)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결과는 과거 선행 연구들(Abramson et al., 2000; Garrison et al., 1991; Reifman & Windle, 1995)을 통해 밝혀진대로 우울감, 무망감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특성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재검증하였으며, 나아가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성향 또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가리킨다.

한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중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양식이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Machoiian, 2001).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보고되었는데(오현아 등, 2008), 모-자녀 간 구체적인 의사소통유형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 결과,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책임 전가, 무시, 복종 요구, 분노 표출 등 어머니의 지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자기비하나 죄책감 등을 부추겨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관해서는 셋째 항목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성별도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의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윤성림, 1990; Baldry & Winkel, 2003; Liu & Tein, 2005; Mitto et al., 2003; Peter et al., 200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인들(우울감, 비합리적 신념, 무망감)의 성차에 기인하였을 확률이 높다.

셋째,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자살생각에 일조함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버지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부추겨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자녀 간 의사소통과 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차이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므로 자녀에 대한 잔소리, 비난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아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모의 “모두 네 잘못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식의 독선, 지시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와 같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희생하는 의사소통유형, “너의 잘못은 이것이고, 때문에 너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분석, 비판적인 의사소통유형,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정 주제를 피하는 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은 발달단계에서 예민하고 중요한 청소년기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부추기고 이것은 자살생각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 중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들로 부모의 초이성형 의사소통유형과 회유형 의사소통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 과도하게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전달하는 엄격한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자녀의 의견과 감정에 맞추려고 애쓰며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존재한다.”와 같은 희생적인 의사소통유형 또한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들은 자살 위험이 높은 내담자의 선별과 이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심리치료 구성에 대해 몇 가지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자살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변인들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자살 위험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우울감이나 무망감 등의 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으나,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인지적 양식과 더불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또한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살생각을 다루기 위한 인지행동치료적 접근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좌절반응이나 무기력 등과 관련이 있는 부적응적 사고를 대안적 사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치료의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살 위험 청소년의 경우(Trautman et al., 1993) 청소년 내담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치료적 동맹은 치료의 유지 및 성과에 매우 중요하므로(Kazdin, 1996; Kendall, 2006)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병행하는 것은 커다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살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자살 치료·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적 개입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자살행동의 예방을 위한 조기 선별을 위해 본 연구는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추후 자살 관련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개인의 자살행동 유형에 따라 자살생각의 기간이나 구체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충동적 자살행동과 비충동적 자살행동으로 이끄는 자살생각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충동적 자살시도자들이 비충동적 자살시도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own et al., 1991).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다루고 있으나 자살시도, 자살성공, 의사자살행동(pseudo suicidal behavior), 자해행동 등과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김경화(198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야자·공성숙·김명아(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9(3), 344-356.
 김주분(1995). 어머니-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황(1981).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영주(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민섭(1993).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1), 1-19.
 오현아·박영례·최미혜(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학회지, 14(1), 35-43.
 윤성림(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98-113.
 장은선(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진·전홍진·김장규·서동우·김선옥·함봉진·서동혁·정선주·조맹제(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행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1(6), 1142-1155.
 통계청(2008). 사망원인통계. www.nso.go.kr.
 홍창기(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성과 비합리적 신념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ramson, L. Y., Alloy, L. B., Hogan, M. E., Whitehouse, W. G., Rose, D. T., Robinson, M. S., Kim, R. S. & Lapkin, J. B.(2000). The Temple-Wisconsin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roject: Lifetime history of Axis I psychopathology in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03-418.
 Baldry, A. D. & Winkel, F. W.(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ego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Baumeister, R. F.(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1(1), 97-113.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1996).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aged 13-24.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74-1182.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1997). Precipitating factors life event in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ths aged 13 through 24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6(11), 1543-1551.
 Beautrais, A. L., Wells, J. E., McGee, M. A. & Browne,

- M. A.(2006). Suicidal behaviour in Te Rau Hinengaro: The New Zealand mental health surve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10), 896-904.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 N.Y.: Harper & Row.
-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 A. T., Weissman, M.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lau, G. M. & Gullotta, T. P.(1996).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Cause, interventions, and preven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oergers, J., Spirito, A. & Donaldson, D.(1998). Reasons for adolescent suicide attempts: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 1287-1293.
- Brent, D. A., Johnson, B. A., Perper, J. A., Connolly, J., Bridge, J. & Bartle, C.(1994).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traits, impulsive violence and completed suicid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1080-1086.
- Brockington, L.(2001). Suicide in woman.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6(2), 7-19.
- Brown, L., Overholser, J., Spirito, A. & Fritz, G.(1991). The correlates of plann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 95-99.
- Burns, J. M. & Patton, G. C.(2000). Preventative interrelations for youth suicide: A risk factor-based approac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388-407.
- Calvete, E. & Cardenoso, O.(2005). Gender differences in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2), 179-192.
- Collins, S. & Citcliffe, J. R.(2003). Addressing hopelessness in people with suicidal ideation: Building upo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utilizing a cognitive behaviour approac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175-185.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7).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57, SS-4.
- Ellis, A.(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The rational-emotive approach*. N.Y.: Julian Press.
- Favazza, A. R. & Conterio, K.(1989). Female habitual self-mutilato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9(3), 283-289.
- Fox, E. E. & Davies, R. L.(1971). Test your rationality. *Journal of Rational Living*, 5(2), 23-25.
- Garrison, C. Z., Jackson, K. L., Addy, C. L., McKeown, R. E. & Waller, J. L.(1991). Suicidal behaviors in you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33, 1005-1014.
- Ge, X., Conger, R. D. & Elder, G. H. J.(1996). Coming of age too early: Pubertal influences on girls vulnerability to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67, 3386-3340.
- Goldey, R. D., Smith, S., Winefield, A. H., Tiggemann, M. & Winefield, H. R.(1991). Suicidal ideation: Its enduring nature and associated morbidit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3, 115-120.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ry, M. & Shaffer, D.(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Journal of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12), 1155-1162.
- Gould, M. S. & Kramer, R. A.(2001). Youth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1), 6-31.
- Glaser, K.(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 Graber, J. A., Lewinsohn, D. M., Seeley, J. R. & Brooks-Gunn, J.(1997). Is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the timing of pubertal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2), 1776-1786.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t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arter, S., Bresnick, S., Bouchey, H. A. & Whitesell, N. R.(1997). The development of multiple role-related selv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835-853.

- Harter, S. & Whitesell, N. R.(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761-777.
- Hartman, C.(1968).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95-389.
- Hawton, K. & Williams, K.(2002). The Influence of media on suicide. *British Medical Journal, 325*, 1374-1375.
- Hawton, K., Sutton, L., Haw, C., Sinclair, J. & Harriss, L.(2005).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in bipolar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6*, 693-704.
- Kazdin, A. E.(1996). Dropping out of child psychotherapy: Issues for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 133-156.
- Kendall, P. C.(2006).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3rd ed)*. N.Y.: Guilford Press.
- Kessler, R. C., Borges, G. & Walters, E. E.(1999). Prevalence of risk factors for lifetime suicide attemp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617-626.
- Laughridge, S. T.(1973). *A therapeutic outcome study of rational emotive psychotherapy*: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Oregon.
- Levenson, M. & Neuringer, G.(1971). Problem-solving in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7*, 433-436.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199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 25-46.
- Liu, X. & Tein, J.(2005).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86(2)*, 195-203.
- Machoiian, L.(2001). Cutting voices: Self-injury in three adolescent girl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39*, 22-29.
- Marciano, P. L. & Kazdin, A. E.(1994). Self-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151-160.
- Mitto, P., Coppi, M. D., Frezza, M., Peteritto, D., Masala, C. & Preti, A.(2003). Suicidal ideation and aggressiveness in school-aged youths. *Journal of Psychiatry Research, 120*, 247-255.
- Peter, T., Roberts, L. W. & Buzdugan, R.(2008). Suicidal ideation among canadian youth: A multivariate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 263-275.
- Petrie, K. & Chamberlain, K.(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 Pfeffer, C. R., Normandin, L. & Kakuma, T.(1994). Suicidal children grow up: Suicidal behavior and psychiatric disorders among relativ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8)*, 1087-1097.
- Plutchik, R.(1976). The self-inventory: A measure of irrational attitude and behavior. *Journal of Rational Living, 11*, 31-33.
- Prinstein, M. J., Boergers, J., Spirito, A., Little, T. D. & Grapentine, W. L.(2000). Peer functioning, family dysfunc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 risk factor model for adolescent inpatients' suicidal ideation sever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392-405.
- Reifman, A. & Windle, M.(1995).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 329-354.
- Reinherz, H. Z., Giaconia, R. M., Silverman, A. B., Friedma, A., Pakiz, B., Frost, A. K. & Cohen, E.(1995). Early psychosocial risks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erican Journal of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 599-611.
- Reynolds, W. M.(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eynolds, W. M. & Mazza, J. J.(1994).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eynolds, W. M. & Johnston, H. F.(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525-280)*. N.Y.: Plenum.
- Rich, A. R. & Bonner, R. L.(1987). Concurrent validity of a stress-vulnerability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7(4)*, 265-270.

- Rossow, I., Grohot, B. & Wichstrom, L.(2005). Intoxicants and suicidal behaviour among adolescents: Change in levels and associations from 1992 to 2002. *Journal of Addiction, 100(1)*, 79-88.
- Rudatsikira, P., Muula, A. S. & Siziva, S.(2007).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school-going adolescents in Guyana: Result a cross sectional study. *Clinical Practice and Epidemiology in Mental Health, 3(13)*.
- Santrock, J. W.(1996). *Adolescence: an introduction*. Madison, W.C.: Brown & Benchmark.
- Schotte, D. E. & Clum, G. A.(1987). Problem solving skills in suicide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49-54.
- Shaffer, D., Gould, M., Fisher, P., Trantman, M. P., Moreau, D., Kleinman, M. & Flory, M.(1996).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339-348.
- Shahar, G., Barket, L., Russ, D. & Joiner, T.(2006). In Severely suicidal young adults,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constitute a singer syndrome.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6*, 913-922.
- Simeon, D., Stanley, B., Frances, A., Mann, J., Winchel, R. & Stanley, M.(1992). Self-mutilation in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correl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2)*, 221-226.
- Spirito, A., Williams, C. A., Stark, L. J. & Hart, K. J.(1988). The 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Psychometric properties with normal and emotionally disturbe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445-458.
- Trautman, P., Stewart, N. & Morishima, A.(1993). Are adolescent attempters non-compliant with outpatient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89-94.
- Wagner, B. M.(1997).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ical Bulletin, 121*, 246-298.

- 접수 일 : 2011년 01월 14일
- 심사 일 : 2011년 05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2일